

경제자유구역 편입·연륙교 건설 사전에 계획 했더라면...

경도 매각 과정 문제없나

최근 심의를 통과한 여수 경도의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 편입이 조만간 승인·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1조원대 투자를 약속한 미래에셋은 다음달 실제 개발 구상이 담긴 경도 개발계획을 내놓고, 내년부터는 골프장·콘도 등을 직접 운영한다. 경도 개발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미래에셋, 내년부터 골프장·콘도 운영=미래에셋은 내년부터 경도 골프장과 콘도·도선 등을 위탁 운영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전남개발공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실상 경도 해양관광단지 지의 주인이 미래에셋으로 바뀌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경도를 아시아 최고 명품 복합리조트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마스터플랜은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용역사가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은 이달 중 제안서를 제출받아 연내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실시설계,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연륙교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에 이뤄진다. 1년6개월가량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19년말에 착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에셋은 2024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200실 규모의 6성급 호텔 등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4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수상빌라·위터파크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급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총 연장 2.6km, 8인승 50기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 50척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2곳도 조성한다.

◇경도 매각 어떻게 진행했나=전남개

해양관광단지 주인 전남개발공사서 미래에셋으로

경도 가치 제대로 산정 못해 '노다지 땅' 줄속 매각

■미래에셋 컨소시엄 사업계획

항목	금액(억원)	세부내역
인수대금	3423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지, 시설물, 운영 등 사업 일체
골프 코스 리노베이션	500	18홀 리노베이션, 클럽하우스 신설 또는 리노베이션
6성급 리조트호텔 & SPA	2000	스위트 객실 200실, 풀빌라 30실, 부대시설
수상 빌라 리조트	230	수상 빌라 20채, 부대시설
페어웨이 빌라 빌리지	1500	페어웨이 빌라 200채, 웰컴하우스, 커뮤니티 시설
위터파크 리조트	1000	객실 70실, 위터파크, 부대시설
오토 마리나	300	50척 계류 마리나 2개소,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S개 사이드 마켓	1380	연면적 23,000평의 리테일 빌리지(S개 사이드 마켓)
해상 케이블카	450	총 연장 2.6km, 8인승 50기 케이블카
기반시설	100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총사업비	1조 883억원~1조 2,000억원	

발공사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1단계(2009~2014년)에 모두 3576억원을 투자했다. 단지 총면적은 216만8894.5㎡로, 이 가운데 이주단지를 제외한 212만7188.5㎡를 매각했다.

매각에 앞서 지난해 5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금액은 3325억원이었다. 공사 측은 조성원가인 3576억원을 매각 기준금액으로 하고, 지금까지 골프장 등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154억원을 빼 3422억원으로 정했다. 미래에셋은 여기에 1억 원을 더 얹어 3423억원을 매각금액으로 제시, 우선협상자가 됐다.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은 지난 1월 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협약 및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줄속 매각 논란=매각을 서두르면서 '경도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도에 대한 투자

가 부족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을 서둘렀는데, 이 때문에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편입 추진이나 연륙교 건설 계획은 사전에 공개했더라면 자산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불투명하고 근사한적으로 경도 매각을 진행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토로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관광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다. 다른 지자체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개발부지를 1원에 공급하기도 한다"면서 "경도 개발은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트럼프 현충원 참배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 트럼프 국회연설 긍정평가

여야, 대북 인식·해법엔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연설에 대해 여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해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으며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대응, 항구적 평화체제 모색 등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해련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강화된 한미동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되고 일치된 합의는 그동안 야당의 주장과는 많은 부분이 배치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당의 입장과 같은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민주당과 달리 경경한 대북 기조에 방점을 뒀다.

국민의당 손규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는 데 함께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다만 오늘 연설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과 강력한 경고, 그리고 ‘포용정책은 실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마치 냉전 시대 가난을 딛고 일어난 개발도상국을 격려하는 듯한 연설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고 평했으며,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30여 분 내내 반공교육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흔스럽지만 예쁘다 어린 날의 친구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02) 우정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밤늦도록 공허한 마음이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약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유안진 작 '지란지교를 꿈꾸며'

중에서)

여고 동창회를 다녀왔다. 모처럼 만난 동창들의 수다는 중년의 건강, 자녀들의 진학이나 진로 등으로 가득하고 짐짓 변하지 않은 우정을 확인해보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오랜만에 우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보며 웃음 짓는 우리 세대는 분명 옛날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다. 과학자들은 우정이라는 정신적 유대감은 인간에게만 발견되는 행위이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정서라고 한다. '나에게 이득을 주지 않아도 관계 맺는 그 자체가 좋아서 계속 곁에 두는 존재'가 갈수록 각박해진 현대사회에서 더 소



신철 작 '기억풀이-조우'

중하게 다가온다.

신철(1953~)의 작품 '기억풀이-조우'(2010년 작)를 처음 마주했을 때 중년 여성들의 동창모임이 연상됐다. 한껏 멋을 부리고 과거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근사하게 연출하고 나섰을 친구들의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산도 출신 신철작가는 “과거 6.70년대 농어촌에서 흔히 있었듯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동에 바친 어린 날 학급 친구이자 동네 누님들을 그림에 서나마 행복하도록 치장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고운 옷, 예쁜 구두, 멋진 가방을 든 그림 속 그들을 흔스럽지만 예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임의대로 작품 감상을 했다가 작가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어린 아이들의 그림 같은 순수함, 단순함, 화려함 속 소박함이 불과 3,40년 전이건만 어느새 아득해진 그 시절들의 저장된 파일을 다시 불러내는 듯 애틋하다. 현재 양평에서 작업하고 있는 화가는 지금까지 32차례 개인전을 국내외에서 가졌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경주비엔날레관공예미술부장·미술사박사>

울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기원 기념품!!

- 보조배터리
- 손목 깎이 세트
- 모바일 쿠폰
-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천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신행 고객 (공제안권 및 예적금회원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일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예금특판

정기예탁금

1년 **2.4%**

2년 **2.5%**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